

투데이 칼럼

# 부귀와 빈천은 돌고돈다

세 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부(富)와 귀(貴)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것은 빈(貧)과 천(賤)이다. 공자도 '부귀는 사람마다 원하는 일이고, 빈천은 사람마다 싫어하는 일'이라고 했다. 장자(莊子) 역시 '큰 지혜가 있는 자는 영고성쇠(榮枯盛衰)를 잘 알고 있으므로 얻었다 해서 기뻐하지 않고, 잃었다 해서 근심하지 않는다.

이는 운명의 변화무상(變化無常)함을 이미 알고있기 때문이다. 생(生)의 진리에 통달한 사람은 생이 미치지 못하는 바에 힘쓰지 않고, 운명의 전라를 깨달은 사람은 인지가 미치지 못하는 바에 힘쓰지 않는다'고 했다.

노자의 도덕경에도 '화(禍)에는 복(福)이, 복에는 화가 들어있다. 겨울이 오면 그 뒤에 봄과 여름이 따라오고, 여름이 오면 뒤에 가을과 겨울이 따라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밝혔다. 돌고 도는게 세상만사다. 길흉화복은 끊임없이 뒤바뀐다. 노자만, 인간들은 언제 뒤바뀔지 모르고 있을 따름이다.

정민교수의 '지영수점(持盈守謙: 빈천과 부귀는 헛바퀴돌듯 돈다)'에서 따온 말이다. 빈천은 근검을 낳고, 근검은 부귀를 낳는다. 부귀는 교만과 사치를 낳고, 교만과 사치는 음란함과 어리석음을 낳으며, 음란

함과 어리석음은 빈천을 낳는다. 여섯가지 길이 헛바퀴처럼 돈다.' 중국 진홍모(陳弘謀)가 엮은 오종유규(五種遺規)에 나오는 말이다. 가난한 자가 부지런히 노력하여 부귀를 얻었다. 부귀를 얻고보니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교만을 부렸다. 교만에 빠져 방탕함에 이르니 순식간에 빈천으로 다시 돌아왔다. 한 때의 부귀는 꿈이었고, 이제는 가슴아픈 빈천만 남았다.

다산은 18년동인의 귀양살이에서 꿈과 희망을 잃은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어 높은지혜를 보여줬다. 손자들의 세대라도 과거에 응할 마음을 먹고 경국제세(經國濟世)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천리(天理)는 돌고 도는 것이니, 한번 넘어진 사람이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법은 없다.

만약 하투아침의 분노를 참지 못하여 먼 시골로 이사가버린다면 무

식하고 천한 백성으로 일생을 끝마치고 말 뿐이다.' 부와 권력, 명예와 위력, 어느것 하나 영원할 수는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 다산이었다. 하늘의 이치는 돌고 돈다는 원칙 아래,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가면, 새로운 세상은 오기 마련이라고 확신했다.

그런 확신만이 어둠과 괴로움과 답답한 현실을 극복해가는 지혜라고 다산은 여겼다. 세상을 원망하여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이나 시골에 숨어살면 별이 들기 어려운 일이다. 환란을 당한 집안일수록 변화한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돌고도는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부귀가 극에 달할때, 마냥 즐거워만 할 수는 없다. 차연 넘치기 마련. 부귀와 빈천은 언제나 돌고 돌기 때문이다.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들, 부귀를 잃고 탄식민하는 사람

들, 다산의 지혜를 교훈삼아 현재 처한위기를 발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명심보감성심편에 '사랑을 받거든 욕됨을 생각하고,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고 했다. 높은 지위에 오르거든 우선 욕됨 것을 염려하여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한 몸의 인란만을 피하고 선명을 배풀지 않는다면, 빈천은 이미 싹트고 있는 것이다.

'극도로 성하면 쇠한다.'고 했다. '복이 있다해도 다 누리지 말고, 권세가 있다 해도 다 누리지 말라.' 했으니, 복, 재주, 병록, 재물의 네가지를 있는 대로 다 쓰지 말고 남겨둬야 오랫동안 지속된다. 사람이 살아 가는데 있어서 교만과 사치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것이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하다. '어려서 장원급제한 자는 관사에 오른 자가 드물다'는 속담이 있다.

인생의 승부는 마지막에서 결정된다. 처음 시작은 울상이지만 마지막에 웃는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한다. 어렵다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잘된다고 너무 오만하지 말자.

인생사는 새옹지마(塞翁之馬)라 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으로 빈천은 물러치고 부귀를 불러오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김재춘

전 원주중앙초등학교장

## 사설

### 전북의 뭇 찾는데 너나 없이 힘 합쳐야

전북의 뭇을 찾는데 너나 없이 뭇을 같이 해야겠다. 탄소법의 국회 통과 때 보여주었던 같은 정신 태도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그러한 정신태도로 힘을 합쳐 이제 정부를 상대로 이 쪽을 뭇을 챙겨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지역 발전을 이루어내야 한다. 지난날에도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여러 번 주문했던 바 있기에 이같은 말이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중요한 주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새겨 들어야 한다.

얼마전에 화이부동의 정신을 말하면서 지역발전을 함께 이루자는 말이 공감대를 이루었는데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다.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신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바로 그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전북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번에는 바로 지역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지금 도민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다. 전북도는 도민의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 도민들이 지난날 반복해 주문했던 것은 도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북도는 계속해서 열기에 고무되어야 한다. 다들 목도하는대로 우리 지역은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다른 고장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뒤처진 채로 있다. 호남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고 할 때 우리 전북 지역은 더욱더 그렇다. 이제 전북도도 지역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의 변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합력하면 고장의 발전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전북도의 능동적인 실력 발휘가 필요하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조하는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한다. 당연한 말을 여기 하거나 지역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를 상대로 제 뭇을 챙기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뭇쳐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끌 능력이 전북도에게 있어야 한다. 도민의 열망을 헤아려 이제 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전을 선도하는 자세로 전진해야 한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 현안을 위해서 지금의 열기를 계속 고조시켜야 한다.

### 상습 음주 운전자 구속과 함께 차량 압수

경찰이 음주 운전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이 된다. 익산 경찰서가 2012년 이후 다섯 차례라 음주 운전에 적발된 이모 씨를 강력 처벌한 때문이다. 문제의 이모 씨는 익산시 야양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3백 미터 가량 운전한 혐의가 있는데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혈중 알콜농도가 0.153였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익산 경찰서는 그에 그치지 않고 구속과 함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것이다.

음주 운전사범 처벌 강화 이후 차량을 압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어떤 운전자들은 익산 경찰서가 너무 세게 나갔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 손목지게 장치이다 신고자와 피해자는 이 스마트위치를 통해 긴급한 상황을 경찰에 손쉽게 전파할 수 있고 동시에 전화통화까지 가능하며 경찰은 신고 이후 신고자와의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강제수신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다. 최신IT기술의 발전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은 최근이지만 내용은 이미 2년 전이다. 2014년도라면 당시 전북의 예산이 5조원 대 일 때이다.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음주 운전이다. 전북 도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다루어야 한다. 음주 운전자만이 아니라 동승자도 방관의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물어 실제 처벌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음주 운전은 근절 되지 않는다. 본보는 사실에서 2015년도의 교통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용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경찰 당국이 법을 무섭게 다루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용은 더 크게 늘어날 터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익산 경찰의 보여준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음주 운전은 교통 질서를 해치고 인명에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이다. 도내 도시의 어느 구간은 저녁 러시아워 때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들 중에는 얼굴에 표가 나지 않는 경우라도 음주 운전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임도훈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순경

## 독자제언

###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을 갖자는 '보라데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2012년 8762건, 2013년 1만6785건, 2014년 1만 755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가정폭력 상담소는 지난해 8월부터 매월 8일을 '보라데이'로 정하고 가정폭력은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 확산과 아동 등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과 도덕성을 회복하고, 범죄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대물림 되지 않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지 않고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월 8일을 가정 폭력 예방의 날로 정하였

다고 한다. '보라(Look Again)데이'의 의미는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보라', '관심있게 보라'라는 의미이며 '보라'라는 뜻의 영단어 'LOOK'의 'OO'가 숫자 8을 눌러 놓은 것처럼 보여 매월 8일을 '보라데이'로 정했다고 한다.

가정폭력의 시작은 주로 개인적 요인으로 사소하게 출발하지만 청소년 문제, 자살 등 현대사회의 주요 문제로 확대되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가정폭력은 한 인격, 한 가정을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범죄이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이다.

이종립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독자제언

### 보복성 범죄 당할시 신변보호·보호용스마트 위치 제공

'보복범죄'란 보복심리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피해자나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2차적인 피해를 가하는 보복성 범죄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헤어집을 요구하는 연인에게 다시 만나는 것을 강요, 주거에 침입,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 감금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면 앙심을 품고 보복하는 연인사이에서의 데이터폭력이 그것이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신고자들은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고 심사를 통해 신변보호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에 등록된 대상자의 전화번호, 가해자 인적사항 등을 통해 신고가 접수 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가까이 위치한 경찰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큰 범죄 피해자에게는 긴급한 상황에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한 신변보호용 스마트 위치를 제공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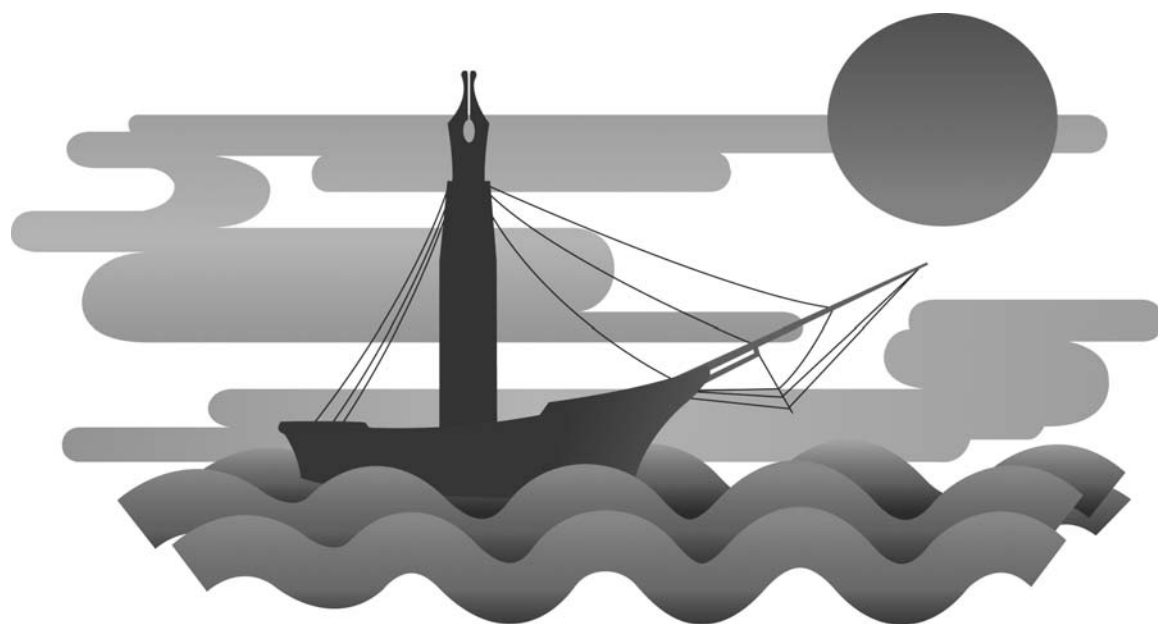
아직은 생소한 이 기기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 위협을 입을 우려가 있는 신고자,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장치로 112 긴급신고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시계 장치이다 신고자와 피해자는 이 스마트위치를 통해 긴급한 상황을 경찰에 손쉽게 전파할 수 있고 동시에 전화통화까지 가능하며 경찰은 신고 이후 신고자와의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강제수신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다. 최신IT기술의 발전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